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겹받침 ‘ㄹ,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ㄱ, ㅂ]으로 발음한다.

- ① 흙[흑] ② 맑다[말따]
③ 읊다[읍따] ④ 젊다[점:따]

2. 다음의 ㉠~㉣ 중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딸 : 어머니! 또 아버지 약 ㉠ 달이셨어요?
어머니: 응, 이젠 어제 것하고는 ㉡ 틀린 거야. 이제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겠다.
딸 : 제가 할게요.
어머니: 뜨거우니까 이 쟁반에 ㉢ 받치렴. ㉣ 질대로 맨손으로 들어서는 안 돼.

- ① ㉠ ② ㉡ ③ ㉢ ④ ㉣

3. 다음은 한글 자음의 제자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과 ㉡이 적용된 글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음 자모는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ㄱ, ㄴ, ㄷ, ㄱ, ㅁ, ㅂ’ 다섯 자를 기본으로 만든 다음, 각각 ㉠ 획을 더하는 가획(加畫)과 ㉡ 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並書)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 ① ㄱ - ㄱ ② ㄴ - ㄷ ③ ㄴ - ㅂ ④ ㅁ - ㅎ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A]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말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 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 이곡, 「차마설(借馬說)」 -

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장면을 삽입하고 있다.
② 경험한 일을 포함하고 있다.
③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④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5. ㉠~㉣ 중 문맥상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6. [A]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작자는 집이 가난하여 간혹 말을 빌려 탔다.
② 작자는 어떤 때에는 준마 위에서 떨어질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③ 작자는 잘 달리는 준마에 올라탔을 때는 마음대로 채찍질했다.
④ 작자는 둔하고 걸음이 느린 말을 탈 때면 항상 말에서 떨어졌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참아 이 곳을 범(犯)하던 못 하였으리라. [A]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여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曠野)」 -

(나) ㉠ 겨울 나무와

㉡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B]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

7. [A], [B]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 ②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 ③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 ④ 직유법으로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8. ㉠~㉣ 중 다음과 같은 ‘시인의 의지’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은?

「광야」는 일제 강점기 암울했던 시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을 지향했던 시인의 의지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9. 다음 중 (나)에서 ㉠과 ㉡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쟁 관계
- ② 공존 관계
- ③ 대립 관계
- ④ 적대 관계

10. 다음 중 (나)를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힘든 일은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
- ② 삶은 고통의 연속일 뿐, 무의미한 것이다.
- ③ 남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다.
- ④ 혼자였을 때에도 누군가는 내 옆에 있었던 것이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누구나 ㉠ 사유 공간(私有空間)을 필요로 한다.

A 전체 인구가 현재의 수준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전체 생활 공간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사유 공간은 적정 공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을 것이다. B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사유 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대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서 사유 공간의 기능도 할 수 있는 ㉡ ‘공유 공간(公有空間)’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의 공간을 독점함으로써 나에게 편리한 점도 많겠으나,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을 줄 것인지를 의식하는 것이 네거티브리즘적인 사고이다.

(나) 어머니의 자궁이 커져 감에 따라서 신체 내의 다른 공간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그 구조를 변화시켜 가듯이, 외부 공간을 침범하는 공간 확장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하나의 내부 공간을 확대시킬 수 있고, 또 다시 축소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적 가변성이 네거티브리즘적인 사고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간을 ㉢ ‘자궁 공간(子宮空間)’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리즘적인 공간 이용의 방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개념이라 생각된다. 필요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와 형태를 변화시키되 결코 필요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게 하지 않는다는 자연의 방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 개념이다. 이것은 또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자연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자는 네거티브리즘의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 김수근, 「건축과 동양 정신」 -

11. 밑글의 ‘네거티브즘적인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개인의 편리만을 추구한다.
- ②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모색한다.
- ③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한다.
- ④ 필요 이상의 것을 차지하지 않는다.

12. A, B에 알맞은 접속어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 ① 또는 - 따라서 ② 또는 - 왜냐하면
- ③ 그러나 - 따라서 ④ 그러나 - 왜냐하면

13. ㉠,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
- ② ㉠의 기능은 인구가 늘어나면 필요하지 않게 된다.
- ③ ㉡은 다른 사람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은 생활 공간의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이 된다.

14. 다음 중 ㉢이 지닌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변성 ② 고정성 ③ 불변성 ④ 획일성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 주의자들의 간사한 꼬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 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 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 보고 있었다.

(나) “자넨 어디 출신인가?”

“…….”

“음,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로.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 조국이 소중한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 모순

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 만 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서, 동족으로서 어찌 한 마디 참고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 버리렵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 [중기]가 낫다고 말이지요. (중략)

㉨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 최인훈, 「광장」 -

15. 밑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준은 근거를 들면서 주장하고 있다.
- ② 명준은 일관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 ③ 명준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 ④ 명준은 자신의 입장을 장황하게 말하고 있다.

16. ㉠~㉨ 중 말하는 목적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17. (나)에서 설득자가 내세우는 논리가 아닌 것은?

- ① 2천만 동포들의 반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 ② 제 나라보다 더 나은 곳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 ③ 남한에는 명준이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 ④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18. ㉢~㉨ 중 ㉢과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 넒라와 시름 ㉡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슨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햐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또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

(나) 비로봉(毘盧峰)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야 놉돏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텡하(天下) 엇찌햐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햐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햐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圓通)골 ㄴ는 길로 스즈봉(獅子峰)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A] 천년(千年)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듀야(晝夜)의 흘너 내여 창히(滄海)에 니어시니,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19. (가)에서 다음의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연은?

「청산별곡」의 화자는 현실의 고뇌로 인해 ‘청산’을 지향
 하지만 삶의 터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 ① 1연 ② 2연 ③ 3연 ④ 4연

2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유사한 어구가 반복된다.
 ② (가)에는 상세한 여정이 드러난다.
 ③ (나)에는 4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이 드러난다.
 ④ (나)에는 자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난다.

21. ㉠~㉣의 현대어 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너처럼 ② ㉡: 많은
 ③ ㉢: 물 ④ ㉣: 올 사람도

22. [A]에 담긴 작가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님께 효도하려 한다.
 ② 벗과 함께 휴양을 떠나려 한다.
 ③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 한다.
 ④ 재물을 모아 영화를 누리려 한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승이 소왓,
 “상공이 오히려 춘몽(春夢)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왓,
 “사부, 어찌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오?”
 호승 왓,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錫杖)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널 빗골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에 끼이어 지척(咫尺)을 분변(分辨)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醉夢中)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게야 소리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引導)치 아니하고 환술(幻術)로 서로 희롱하나뇨?”

말을 맞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驚惶)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香爐)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나)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날 염주(念珠)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위(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道場) ㉡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 스승에게 수책(受責)하여 풍도(豐都)로 가고, 인세(人世)에 환도하여 ㉣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공명신퇴(功名身退)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 다 하룻밤 꿈이다.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교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
 ② 현실과 꿈의 세계가 나타나 있다.
 ③ 사건 전개에 비현실적 요소가 들어 있다.
 ④ 객관적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24. (가)의 ‘호승’을 (나)에서 찾으려면?

- ① ㉠ ② ㉡ ③ ㉢ ④ ㉣

25. ㉤와 관련이 있는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우이독경(牛耳讀經) ② 일장춘몽(一場春夢)
 ③ 침소봉대(針小棒大) ④ 풍전등화(風前燈火)

※ 확인사항

답을 OMR 카드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였는가?